



(伴鷗亭)

가
목

기 이 기 이 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나 혼자만이 조용히 머리를 식히고 고즈넉한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반구정(伴鷗亭)을 가 볼 일이다. 굳이 혼자만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연인끼리나 아니면 가족단위의 나들이 장소로도, 반구정은 더할 수 없는 명소로 도심에서 찌들은 몸과 마음을 말끔하게 씻어 줄 것이다.

반구정은 조선 세종 때의 명상(名相)이며 청백리(淸白吏)로 이름 높은 황희(黃喜)가 관직에서 물러나 갈매기를 벗삼아 만년의 여생을 보내던 곳으로,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임진강변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서울 강남의 압구정(狎鷗亭)은 알아도 파주시 문산읍의 반구정이라는 정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반구정과 압구정, 둘 다 강변에 있는 정자의 이름이다. 두 정자의 ‘반(伴)’과 ‘압(狎)’이라는 글자는 모두 강변의 갈매기와

친하고 벗한다는 뜻을 지닌 것이다. 옛 선비들이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강변의 갈매기를 벗삼아 여유 롭게 살았던 곳이다.

모두 조선 초기에 지어진 정자로 반구정이 압구정보다 약 30여년쯤 먼저 세워졌다.

세조 왕위찬탈의 일등공신인 한명회(韓明澮)가 세운 압구정이 한강을 내려다보고서 있다면 반구정은 임진강을 내려다보고서 있는 것이다.

반구정은 문산읍에서 서북방향으로 3.5km 떨어진 임진강변의 기암절벽 위에 자리잡고 있다. 임진강의 푸른 물이 정자 아래로 굽이쳐 흐르고 송림이 울창하여 예로부터 백구(白鷗)가 많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맑은 사람의 삶은 존경스럽고 그리운 것이다. 조선조 청백리(淸白吏)의 귀감으로 상징되는 황희 정승의 고고한 자취가 서려있는 반구정은 그래

서 더욱 우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4각의 반구정은 가파른 절벽 위에 오탁하니 올라앉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 반구정 조금 위 언덕에는 양지대라는 8각 정자가 있어 다정하게 이웃이 되고 있다.

이곳 반구정 정자는 한국전쟁 때 불타 없어졌던 것을 1967년 6월 장방 4칸 규모로 아담하게 재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구정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다.

북쪽으로 멀리 임진각이 바라보이는 반구정 정자에 오르면 살랑거리는 바람결 속에 막혔던 머리가 확 트이며 상큼한 기분을 만끽할 수가 있다. 정말 황희 정승은 정자에서 지나가던 갈매기를 손짓해 불렀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은빛 햇살이 눈부신 강가에는 몇 척의 고깃배가 정박해 있고, 그 물결 위로 한가로이 갈매기가 날고 있는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것 같은 절경이다. 다만 정자 옆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바로 아래 초소에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어 이곳이 북한과 가까운 접경 지역임을 말해주고 있다.

반구정에서 내려오면 넓은 마당 오른쪽에 황희정승의 동상이 아늑하게 서있고, 그 왼쪽에 방촌영당(龐村影堂)과 경모재(景慕齋)가 있다.

경기도 기념물 제29호인 방촌영당은 한국전쟁 때 전소(全燒)된 것을 1962년에 후

손들이 복원한 것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인 초익공양식(初翼工樣式)의 맞배지붕에 단청(丹青)이 되어 있고, 솟을 삼문이 있다. 영당은 황희 정승의 영정을 봉안했던 곳이고, 경모재는 제사를 모시는 곳이다.

황희(1363~1452)는 조선왕조 500년을 통하여 가장 어질고 슬기로우며 청렴결백한 재상으로 칭송받는 인물이다.

개성에서 태어나 14세에 음보로 복안궁녹사(福安宮錄事)가 된 황희의 어렸을 때 이름은 수로(壽老), 호는 방촌(龐村), 시호는 익성(翼成)이다.

20대의 황희는 기울어져 가는 고려말에 사마시와 진사시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1392년 이성계(李成桂)의 역성혁명으로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왕조가 들어서자 두문동(杜門洞)에 묻혀 은거했다. 나라가 망했으니 새 왕조에 협력할 수 없다며 고려 유신들과 두문동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요청과 두문동 옛 신하들의 천거로 조선 조정에 출사하게 되었다. 성균관학관으로 제수 되면서 세자우정자(世子右正字)를 겸임하였다.

벼슬길에 오른 후 황희에게 시련은 빨리 다가왔다. 그는 태조와 정종을 거치는 동안 별 잘못 없이 쫓겨났다가 복권되고 좌천하기 여러 번이었다.

태종이 왕이 되고서 형조·예조·병조·이조 정랑을 차례로 맡았고 나이 43세 되던 해 조정의 기밀을 전담하고 왕명출납을 맡던 으뜸 벼슬자리인 지신사(知申事)에 올랐다.



지신사는 훗날 도승지(都承知)로 명칭이 바뀌었다. 황희는 성품이 너그럽고 침착하며 사리가 깊었다. 또한 청렴하고 충효가 지극했으며 높은 학덕을 쌓아 태종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태종은 “비록 공신은 아니지만 나는 그를 공신으로 대우하였고, 하루라도 접견하지 못하면 반드시 불러서 접견하였으며, 하루라도 좌우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할 정도로 황희를 가까이 했다.

황희는 공조·병조·예조·이조 판서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농사개량과 뽕나무 재배로 의생활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예법(禮法)을 현실에 맞게 고쳤다. 또한 법률집 <경제육전 經濟六典>을 수정 보완하여 펴내는 등 문물과 제도의 정비에 힘써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황희는 태종이 왕세자를 첫째인 양녕대군에서 셋째인 충녕대군으로 바꾸었을 때 이를 반대하다가 태종의 진노를 사서 교하(交河, 지금의 파주)를 거쳐 남원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1431년 복직되어 영의정부사에 올라 세종의 치세를 뒷받침하면서 18년간의 세종과 황희의 시대가 열린다.

세종의 덕치와 문화정치의 빛나는 업적 뒤엔 황희라는 지혜롭고 청렴한 명재상이 있었다. 황희는 87세가 되어서야 오랜 관직에서 물러났고 3년뒤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90이었으니 천수를 다한 삶이었다.

한편 황희 정승의 묘는 반구정에서 멀지 않은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있다. 경기도 기념물 제34호로 지정된 묘소는 둘레가

34m, 높이가 4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로 봉분의 크기가 매우 큰 보기드문 양식이다.

전체적으로 황희의 묘소에서는 소박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자태의 분위기를 특이하게 느낄 수 있다. 서향에 가까운 묘는 앞면이 시원스럽게 확 트였고 묘역의 잔디가 곱게 깔려 있다.

18년간 영의정을 하며 세종의 황금시대를 열게 했던 황희. 그는 왕의 인품과 업적을 빛나게 할 뿐 정작 자신은 일절 내세우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재상이었다.

오늘도 반구정 주변을 유유히 날고 있는 갈매기는 바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소리없이 살다 간 방촌의 유덕을 기리기 위함인 것 같다. 조용히 시간을 내서 한번쯤 반구정에 다녀와도 좋을 것이다. ☺

<찾아가는 길> : 서울에서 자유로를 따라 임진각(문산)쪽으로 올라가면 일산신도시, 통일전망대를 지나 문산IC가 나온다. 문산IC로 나와 LG정유 문산주유소 앞에서 왼쪽 23번 지방도로를 따라 조금 가면 길이 두 갈래로 나뉜다.

오른쪽으로 난 23번 시도로를 따라 조금만 더 가면 또다시 두 갈래로 길이 나뉘는데 왼쪽으로 난 마을길을 따라 자유로 교각 밑을 지나면 반구정에 닿는다. 주유소에서 반구정까지는 약 1km거리이다.

반구정 주변에는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은 문산에서 사목리행 시내버스를 타고 반구정 입구에서 내려서 조금 걸으면 된다.